

“예향 광주서 제2의 싸이 찾습니다”

수완동에 아카데미 연 광주출신 작곡가 김형석 씨

신승훈 'I believe', 솔리드 '이 밤의 끝을 잡고', 성시경 '내게 오는 길'까지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것만 1200곡이 넘는 한국을 대표하는 작곡가 김형석(46)이 음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자 하는 가수·연기자지방생을 위해 지난 2008년 케이노트 아카데미를 시작했다. 서울 강남본점, 강북점에 이어 지난 7월8일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세 번째로 문을 열었다. 그리고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를 통한 첫 번째 오디션을 진행했다.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까지 끼가 넘치는 인재들이 지역에도 정말 많아요. 그럼에도 지역이라는 이유로 도전하지도 못한 채 꿈을 포기해야 하는 친구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광주에 케이노트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됐어요.”

한양대학교 작곡과 85학번으로 서울에서 생활한 지 20년도 넘었지만 광주 동산초등학교, 송의중학교, 인성고등학교를 졸업해서인지 광주에 대한 애정만큼은 남달랐다. 무등산이란 단어를 들으면 여전히 편안함을 느끼고 흥어의 알싸함을 즐긴다는 김형석 케이노트 대표는 가수지방생들에게 진심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한 기술은 일정 기간 동안 연습하면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노래를 가슴으로 이해하고 감정을 담아내기 위해 필요한 경험과 철학은

배울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때 해야 할 공부나 부족하면 감동을 주는 진정한 가수가 될 수 없어요.”

김 대표는 요즘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이 늘어나면서 참가자들의 수준이 예전보다 훨씬 향상됐다고 말했다. 과거 가수 지방생들이 노래에 대한 열정만 있었다면 지금은 실력에서부터 오디션에 임하는 표정과 말투까지 철저하게 준비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그럴수록 ‘발성’이나 ‘호흡’ 같은 기본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덧붙였다. 발성과 호흡을 탄탄하게 갖춰야 그 위에 노래에 대한 기교를 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광주지역 가수 지방생들의 경우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5·18이라는 특별한 체험, 예향의 도시로서 판소리 등 흥겨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남다른 가능성을 가진 사례가 많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 활동 중인 아이돌 그룹 중 공민지(2NE1), 구하라(카라), 수지(미스 에이), 승리(빅뱅), 유노윤호(동방신기), 유빈(원더걸스) (가나다 순) 등 광주출신 가수들이 활발히 활동 중이다. 그는 전 세계에 케이팝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은 곧 ‘아이돌 열풍’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한국의 아이돌 가수들이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일까?

“세계적으로 힙합과 일렉트로닉 장르가 인기인데 이런 노래 대부분은 마약과 폭력, 섹스 등 선정적인 가

사가 빠지지 않아요. 반면 케이팝은 자극적인 가사가 없지만 독특성 있는 후렴구와 화려한 퍼포먼스가 눈길을 사로잡죠. ‘착한 가사’와 ‘신나는 퍼포먼스’가 케이팝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아이돌 가수를 키우기 위해서는 가능성 있는 인재를 일찍부터 키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획사들의 가혹한 교육체계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에서 온 어린 가수들이 완벽한 군무를 하는 모습을 보면 세계가 놀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요. 미국에서는 아이돌 가수들도 학교에서 정해진 시간만큼 학교수업을 듣고 잠을 잘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어요. 한국은 그런 부분을 희생하면서 춤과 노래를 연습하고 있는 것이죠.”

화려한 ‘스타’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지금까지와 똑같은 방식으로 아이돌을 발굴한다면 결국 케이팝 열풍은 사들것으로 전망했다. 김 대표는 ‘새로운 가능성’을 가수 사이에서 찾았다. 독특한 표정과 우스꽝스러운 춤까지 싸이는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캐릭터지만 그가 부르는 노래는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음악을 아주 세련되게 담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싸이는 전 세계에 한 명 뿐인 독창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케이팝이 아니라 그냥 ‘싸이’라고 강조했다.

20여년 동안 작곡가, 제작자로 살아왔지만 여전히 더 좋은 곡을 만들고 그 노래를 불러 줄 가수를 찾고

있는 김형석 대표. 그가 기억하는 가장 인상적인 오디션은 없었다.

“중국의 한 오디션 방송에 심사위원으로 참가해서 정말 실력 있는 참가자를 발견했어요. 노래를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는데 천부적인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참가자들이 정부 고위 간부들의 친척들이었죠. 결국 다른 심사위원들은 ‘특별하지 않은 배경’을 가진 학생을 탈락시켰는데 본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결국 그 학생은 무대를 떠났어요. 탈락한 친구는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 ‘음악 선생님’이라며 끝까지 자신을 믿고 응원해 주셔서 고맙다고 했어요. 고향으로 떠나기 전 해줄 수 있는 게 노래 뿐이라며 제 노래 'I believe'를 불러줬어요.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불러주는 노래에 받은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한 아이의 아빠가 됐지만 여전히 뜨거운 열정을 간직한 작곡가 김형석, 그는 자신의 수많은 노래 중 가수 김광석이 부른 ‘사랑이라는 이유로’를 제일 좋아한다며 음악에 대한 식지 않은 열정을 드러냈다.

“이 곡은 가수에 맞춘 게 아니라 제 느낌을 그대로 담아 만든 솔직한 노래라 가장 애착이 가죠. 최고의 곡이요? 그건 지금 만드는 곡이 최고의 노래가 됐으면 좋겠네요.”

/양세필기자 hot@kwangju.co.kr



“지역 인재위해 써달라”

퇴임 장석홍 전 함평부군수 300만원 기탁

지난달 명예퇴임한 장석홍 전 함평부군수가 3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함평군은 21일 “1년6개월간 함평에서 근무하다 지난 6월30일 34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한 장 전 부군수가 퇴임하면서 함평의 인재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 300만원을 군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광주가 고향인 장 전 부군수는 함평과는 별다른 연고가 없으나 짧은 기간이나마 함평과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겨 장학금을 기탁했으며, 그동안 모범적인 공직생활을 인정받아 퇴임식 행사에서 공직자들과 기관사회단체로부터 공로패와 감사패를 받았다.

/함평=황은화기자 hwang@kwangju.co.kr

조대부고, 저소득층 학생 28명에 ‘탐 장학금’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교장 강중근)는 최근 1학기종업식에서 ‘탐 장학금’을 전달했다. ‘탐 장학금’은 지난 1980년 재학생들이 용돈을 절약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억3402만6928원을 324명에게 건넸다.

(조선대부속고등학교 제공)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원우회장배 골프대회 성료



제 1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원우회장배(회장 정인재) 제2회 골프대회가 지난 20일 함평 다이내스티골프장에서 리더스 아카데미 골프회(회장 정원주)회원 등 30여명이 참여해 성황리에 열렸다. 원우 화합과 친목의 장이 된 이날 골프대회에서는 신페리오 우승자, 메달리스트 등에 드라이버, 우드 등 푸짐한 상품이 전달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조혜련,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홍보대사

완도군(군수 김종식)이 지난 20일 개그우먼 겸 방송인이자 베스트셀러작가인 조혜련 씨를 2014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완도군은 21일 “2014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널리 알리고, 미래대체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도전의 아이콘’으로 알려진 조혜련씨를 홍보대사에 위촉했다”고 밝혔다.

1992년 KBS 대학 개그제를 통해 데뷔한 조씨는 22년째 코미디프로를 비롯한 드라마, 영화, 노래 등 다방면에서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적인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2010년 MBC연예대상 최우수상, SBS 연예대상 베스트 TV스타상 수상을 비롯한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조혜련씨는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같은 국제행사의 홍보대사로 위촉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향후 활동하게 될 중국에서도 박람회를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사진=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F1 코리아 조직위, 암투병 동료에 성금 200만원

전남도 F1 코리아 그랑프리 조직위원회 직원들이 암투병 동료를 위해 성금을 모아 전달했다. F1 조직위 직원들은 자발적인 모금활동을 벌여 혈액암 투병중인 옛 동료인 장모씨의 집을 방문, 2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장씨는 지난해 초 갑작스럽게 혈액암 진단을 받고 입원과 방사선 치료를 반복하는 등 힘겹게 병마와 싸우고 있다. 딱한 소식을 접한 조직위 전·현직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모금운동에 나서 지난 해 12월 120만원을 전달한 데 이어 이번에도 다시 성금 지원에 나선 것이다.

한편 장씨는 첫 F1 때인 2010년부터 2년간 조직위에 몸담으며 F1 성공 개최에 힘을 보탰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농협, 옛 남구청 광장서 직거래 장터



전남농협지역본부(본부장 박중수)는 “농민은 5% 더 받고, 소비자는 10% 싸게사는” 농축산물 직거래 큰 장터를 지난 19~21일까지 3일간 남구 봉선동 옛 남구청 광장에서 문을 열어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장터는 전국 9개 시도에서 동시에 개장했으며 생산농가에 판로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유통기름을 뺀 값싸고 신선한 농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광주·전남 22개 시군에서 출하되는 제철 농산물 200여 품목과 녹색한우 우수 브랜드 축산물을 생산농가와 농협이 참여해 시중가격보다 10%~20% 저렴하게 판매했다.

/최재호기자 lion@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중천회

▲(사)전주씨매 대표종약원 광주·전남 지원 여성 이화월례회의=22일(월) 오전 11시 011-605-2059(회장 이보희).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자 062-1366.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알코올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을 실시. 062-526-3370.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 부모상담 및 입양상담 24시간, 위탁 가정 상담, 입양가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입양가족 자조모임 운영 062-222-9349.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미혼부

모상담 및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안내, 학생미혼모 단기위탁교육 기관으로 학력 인정, 무료의료지원 등 속식번호 062-232-1313. ▲시민 학생의 '인성함양'과 '성찰과 미래'를 위한 철학박사의 인문학 강좌 '우리 꿈 우리가 키우자'='논어'(매주 토요일 오후 4시)·'대학'(매주 월요일 오후 7시)(5월~12월) 광주YMCA 2층(수준문관·누구나 수강 가능 무료) 010-3625-5433. ▲책임유증 통한 행복만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 '한술(부부)을 일컫는 순 우리말' 절주학당=25일(총 7회)매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까지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062-526-3370, 510-3370. ▲광주중합사회복지관 아동가족상담센터 무료상담=아동심리적 발달·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양육상담 062-264-4370, 5308. ▲오지중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성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 무료 교육=요

가, 웃음교육, 푸드아트테라피, 매주 월·수요일 오전, 선착순 20명. 062-267-3700. ▲대한선원 명상 무료 지도=학생, 주부, 직장인, 마음의 평화를 원하시는 분 062-228-7701.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장애차별 상담=국번 없이 1331, 우편방문-광주시 동구 제봉로 광주은행 본점 6층.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을 무료 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주기, 묘자리 바꾸기 등(실버에 한함) 062-365-8228.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아일시보호 무료 상담=보호가 필요한 아동 일시보호 상담. 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 및 시설 입소 안내 062-222-1095.

모집

▲(사)광주시 동구자원봉사센터

'동화구연 전문봉사단' 육성교육 수강생=23일(화)까지 선착순 20명. 전문봉사단에서 봉사활동 가능한 사람. 9월 2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9시30분~11시30분까지 12주 강의. 062-228-1365. ▲'함께 안아요! 함께 키워요! 가정 위탁' 위탁부모=부모의 사랑,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기간 위탁하여 보호할 수 있는 위탁부모를 모집 어린이재단 광주지점위탁 062-351-1206. ▲한국노후생애대안학교 7기 학생 모집=장수시대에 50세 이상 중장년이 퇴직 후 자기계발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후생애준비를 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 교육과정은 노후생애 설계, 생활영어, 한시, 웃음 치료, 노인상담심리학. 대상은 노후준비 희망자, 열정있는 중장년, 건강한 은퇴자(선착순 35명) 원서접수 22일~8월 21일(수) 오후 5시까지(합격자 발표 8월 26일 개별통지) 062-

223-1357, 010-2646-5023. ▲각화문화회집 프로그램 회원=바이올린교실(매주 토요일 오후 1시~오후 4시 30분), 하모니카(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오후 3시), 노래교실(매주 월요일 오후 3시~오후 4시30분) 등 수회 회원 모집, 광주 북구 각화동 480-41번지 062-265-9337. ▲주간재활프로그램회원=만성정신질환을 위한 정신재활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주 5일) 정신건강상담서비스 무료제공,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062-233-0468. ▲'사랑의 열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장애여성 및 취약계층 여성 교육생=교육대상은 여성 장애인 및 취약계층 여성(선착순 15명), 교육기간은 4월~9월(주1회·오후 2시·교육비 무료), 장소는 전남대동창회관. (사)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광주광역시협회 062-251-7482, 019-622-1721. ▲사랑의 열매와 함께하는 나눔교

육 신청 안내=사랑의 열매에서 광주 지역 유치원,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나눔교육을 실시, 참여 어린이 나눔문화 활동가 인증서 발급. 062-222-3566, 3567. **부음** ▲홍수식씨 별세 도회·창희·정원·민숙·정남씨 부친상=발인 23일

(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박낙원씨 별세 중주·상영·순덕씨 부친상=발인 23일(화)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민원식씨 별세 병수·병윤·병관·병천·현숙·경희씨 부친상=발인 22일(월)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故이난형 님(남/89세) 子/子婦: 이장식/김미연, 정현/이미숙 女/婿: 이장미/최진수 •호실: 401호 •장지: 화순동면	故최현철 님(남/60세) 子/子婦: 최민석/김미순, 민준 女/婿: 최보영/이정석, 부영/김 철, 정미 未亡人: 김연희 •호실: 402호 •장지: 영락공원
故정명순 님(여/76세) 子/子婦: 양동성/김지영, 동일/구미선 女: 남수희 •호실: 101호 •장지: 영락공원	故남진석 님(남/77세) 子/子婦: 남준수/차연희, 명수/이승미 女: 남수희 •호실: 102호 •장지: 영락공원

孝 金 浩 宗 禮 式 堂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